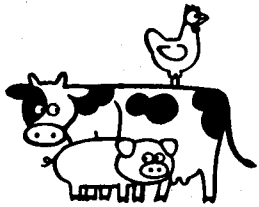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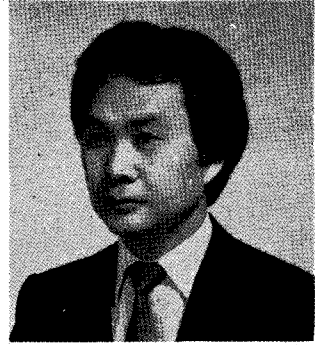


축산경영의 형태와 종류



정 찬 길

건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농업경제학 박사



1. 축산경영형태

경영형태(經營形態)는 일반적으로 경영의 주체성(主体性) 즉 의지결정(意志決定)과 손익부담(損益負擔)의 문제로서, 이것은 경영주체(經營主体)의 성격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된다.

경영의 형태에는 법적 성격에 의한 분류와 경영성적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경영성적에 따른 분류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가족경영(家族經營)

축산경영에서도 근래에 규모확대(規模擴大)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 축산의 지배적인 경영형태는 가족경영이면서, 그것도 농가 부산물을 이용한 부업적(副業的)인 영세한 사양이었다. 따라서 축산에 필요한 기계시설, 가축 등 고정자본(固定資本)이 부족하여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노동형의 가족경영으로 운영되었다.

축산 경영 · 경제 강좌 목차

- 축산경영의 목적
- 축산경영의 요소
- 축산경영의 형태와 종류
- 축산물 생산비 종류, 평가방법
- 축산경영 조직
- 축산경영 규모
- 축산물가격과 시장
- 축산부기 및 회계
- 축산물 유통
- 축산사료의 수급과 가격변동
- 축산경영의 분석과 계획

(계재순서는 변동될 수도 있음)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의 발전으로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수요(需要)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양축농가에서도 여러 종류의 축종(畜

〈표-1〉 한우(육우포함)의 사육규모별 두수변화

단위 : %

년 도	1~2두	3~4	5~6	7~9	10~14	15~19	20~29	30~39	40~49	50두 이상
1970	97.9	1.7	0.2	0.1	0.0	0.0	0.0	0.0	0.0	0.0
1972	97.8	1.7	0.2	0.1	0.1	0.0	0.0	0.0	0.0	0.0
1974	96.1	3.3	0.3	0.2	0.1	0.0	0.0	0.0	0.0	0.0
1976	97.5	1.8	0.3	0.2	0.1	0.1	0.1	0.0	0.0	0.0
1978	94.0	4.5	0.7	0.3	0.2	0.1	0.1	0.0	0.0	0.0
1980	92.3	4.9	1.2	0.6	0.5	0.2	0.2	0.1	0.0	0.0
1982	86.5	8.6	2.3	1.3	0.6	0.3	0.2	0.1	0.0	0.1
1983	81.2	13.3	3.3	1.5	0.3	0.1	0.1	0.0	0.0	0.0
1984~6	77.5	15.8	4.0	1.8	0.4	0.2	0.1	0.1	0.0	0.0
1984·6/70*	-5.3	4140.4	1807.1	2652.2	733.7	840.8	725.3	624.1	314.8	312.5

* 사육농가 호수의 변동률임.

자료 : 농수산부 「농가통계연보」, 1983.

농수산부 「가축통계조사결과」, 1984. 6

種)을 단순화하여 단일축종(單一畜種)으로 바꾸어 가면서 점차 사양규모(飼養規模)를 확대해가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주요 축종별 사육양축가 호수(戶數)와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우(韓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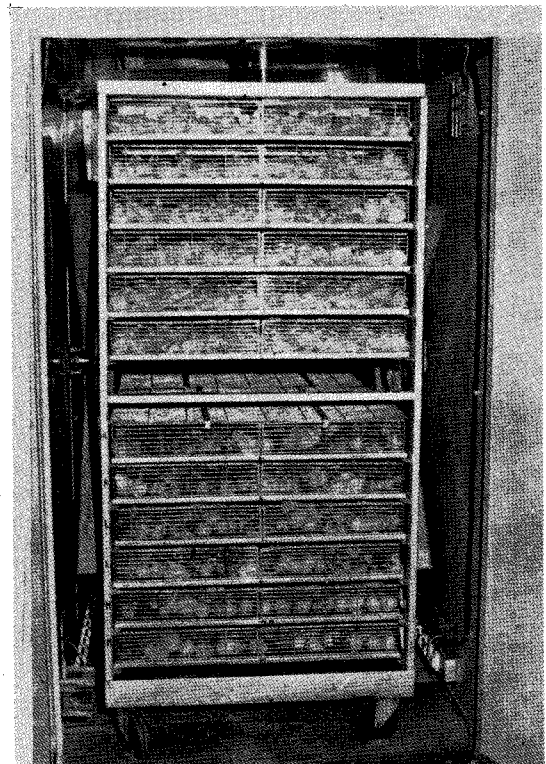
한우(육우 포함)의 사육규모는 1970년에 전체 사육두수의 97.9%가 1~2두의 사육규모였으나 1984년 6월에는 77.5%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사육농가는 같은 기간에 5.3%가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보다 규모가 큰 사육농가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육두수도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1〉.

2) 돼 지

돼지의 경우는 한우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1965~83년 사이 돼지의 총사육두수는 164%가 증가하여 연평균 7.2%의 증가율(增加率)을 나타낸 반면에 사육호수(飼育戶數)는 50.2%가 감소하여 연평균 3.6%씩 줄어들었다. 〈표-2〉

3) 양계(養鷄)

양계의 경우도 사육규모의 변화를 가져왔는



반면 사육수수는 5.8%씩 증가하여 호당(戶當) 평균 사육수수가 같은 기간에 13.5%씩 증가하였다(표-3).

나. 기업경영(企業經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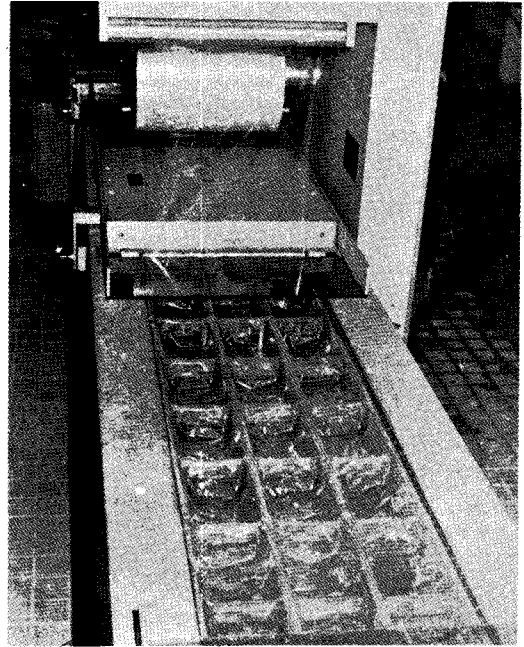
기업경영은 일정한 자본투자(資本投下)에 의하여 형성되며 고용노동(雇用勞動)에 의해 이루어져 투자자본에 대한 이윤(利潤)을 추구하는 경영을 말한다.

사육농가에서도 기계화에 의한 고용노동력의 절감에 노력하면서 사육규모의 확대에 힘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력을 도입하여 사육규모의 확대를 꾀하기도 한다.

사육농가에서의 이러한 것들이 점점 진전되어 고용노동력이 주가 되어 기업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면 기업경영으로 되어가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가족경영의 발전에 의하지 않고 전혀 새롭게 기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한편 기업경영의 법적 형태는 개인경영외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유한회사(有限會社), 합명회사(合名會社),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식회사(株式會社)의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근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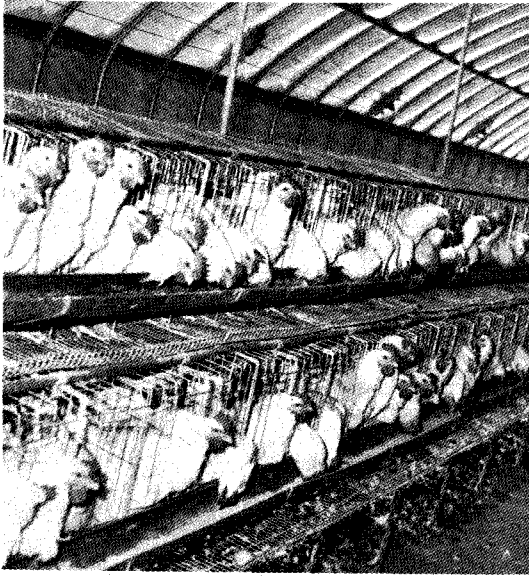
여러 재벌그룹 등 대자본기업이 그 자본력에 의한 대규모의 축산경영을 직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하튼 앞으로 축산경영도 기업경영으로 발전될 것이 확실하지만 기업경영의 급증으로 가족경영 형태의 영세한 양축가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축산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충될

〈표-2〉 돼지 사육두수 및 호수변동, 1965~83

년 도	사 육 두 수	사 육 호 수	호 당 사 육 두 수
1965	1,382천두	1,083천호	1.3두
1970	1,121	884	1.3
1975	1,247	654	1.9
1980	1,784	503	3.5
1981	1,832	425	4.3
1982	2,183	444	4.9
1983	3,649	539	6.8
1983 / 65 (%)	164.0	△50.2	423.1
1965~83 (%) 평균변화율	7.2	△3.6	12.5

자료 : 축협중앙회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1984.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공동경영(협업경영)

공동경영(共同經營)은 두가구 이상의 양축농가가 공동출자(共同出資)하여 생산에서 판매, 수지결산, 수익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일괄해서 공동으로 행하며 독립적인 경영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축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문공동경영(部門共同經營)과 참여농가의 축산경영 전부에 대한 전면공동경영(全面共同經營)으로 구별할 수 있다.

〈표-3〉 사육규모별 호수 및 수수의 비중 변동, 1970~83

단위 : 호, 수, %

	연 도	계	50수 미만	50~999	1,000~2,999	3,000~9,999	10,000수이상
호수	1974	1,001,885	97.7	2.0	0.2	0.1	0.0
	1976	1,236,771	99.3	0.4	0.2	0.1	0.0
	1978	1,172,054	98.9	0.4	0.3	0.3	0.0
	1980	692,219	98.2	0.5	0.7	0.5	0.1
	1981	628,380	98.3	0.3	0.7	0.6	0.1
	1982	618,463	98.3	0.3	0.6	0.6	0.1
	1983	538,369	98.4	0.2	0.5	0.7	0.2
	1984. 6	470,367	97.9	0.6	0.5	0.8	0.2
수수	1974	18,184,204	29.5	8.7	13.2	22.4	23.6
	1976	26,325,190	24.3	6.2	13.4	27.5	25.6
	1978	40,753,249	13.5	3.9	15.7	36.7	26.2
	1980	44,422,000	8.3	2.5	16.8	41.4	31.0
	1981	42,999,172	6.1	2.2	17.4	41.6	32.7
	1982	46,591,640	5.3	1.7	14.5	43.1	35.5
	1983	49,239,436	4.0	1.0	10.1	37.7	47.2
	1984. 6	53,239,436	6.2	1.1	8.4	35.9	48.4

* 1980. 9월 통계임.

자료 : 축산진흥회, 「가축통계」, 1979.

축협중앙회,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재」, 1984.

농수산부, 「가축통계조사결과」, 1984. 6.

공동경영은 일반적으로 규모확대(規模擴大) 등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결성되는데, 그 본질(本質)은 사육농가의 개별이익의 신장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말하자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락단위의 공동방목장도 이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경영의 효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규모확대에 의해 대규모생산의 유리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공동경영은 이론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육농가는 농가마다 개인의식이 강하며 공동경영에서의 노동제공, 비용부담, 이익분배 등으로 이해(利害)가 일치하기 어렵고, 또한 공동화하면 노동의욕이 저하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경영의 성패는 개별이익과 공동이익의 모순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공동경영은 참가농가의 개인적 이해가 기본적으로 일치한 후에 농가간의 인화단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공동경영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4가지 원칙이 만족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첫째, 유리성(有利性)의 원칙

참가사육농가에 의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하는 편이 생산성, 소득에 있어서 유리하여야 한다. 즉 대규모생산의 이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평(公平)의 원칙

적정한 공동계산에 의해 참가사육 농가간에 불공평,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셋째, 민주화(民主化)의 원칙

참가사육농가간에 서로 대화를 통하여 납득이 가도록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조정(調整)의 원칙

부문공동경영과 참가사육농가의 개인경영과의 사이에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축산경영의 종류

축산경영의 종류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농업의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국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축산경영의 종류는 가축사육의 종류에 따라, 경영의 목적에 따라, 경영의 입지조건 등에 의하여 분류되고 있다.

가. 가족의 종류에 의한 분류

- 1) 낙농경영(酪農經營)
- 2) 육우경영(肉牛經營) - 비육우경영
- 3) 양돈경영(養豚經營)
- 4) 양계경영(養鷄經營)

양계경영에는 종계(種鷄), 산란계(產卵鷄), 육계(肉鷄) 등으로 다시 세분하여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산란계경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4년 6월 현재 우리나라 닭 사육수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53,230,008수 중에서 산란계가 52.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육계로 37.5%이며, 종계는 4.0%를 차지하고 있다(표-4).

나. 축산과 경종(耕種)과의 관계에 의한 분류

1) 전업축산(專業畜產)

전업축산은 농가의 소득(所得)을 완전히 축산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기업적 자본가적 경영방법이다. 전업축산에서는 농가에서 소비하는 식량은 물론이고 조사료를 제외한 모든 사료를 구입에 의존한다.

이와같은 경영은 노동력도 고용노동력에 의존하며 대부분 단일경영인 경우가 많다.

2) 혼동농업(混同農業)

혼동농업(mixed agriculture)은 구미주(歐美洲) 국가들의 일반적인 농업형태를 말한다. 즉 농업에 있어서 경종(耕種)과 축산과를 그 비중

(표-4) 용도별 닭 사육수수 및 구성비, 1984. 6

단위: 수, %

	계	종 계	산 란 계	육 계	결 용 계
사 육 수 수	53,230,008	2,137,572	27,673,088	19,965,928	3,453,420
구 성 비	100.0	4.0	52.0	37.5	6.5

자료: 농수산부, 「가축통계 조사 결과」, 1984. 6.

에 있어서 동등하게 경영조직을 조직하는 농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작부계획(作付計劃)에 사료작물을 반드시 넣고 또 생산된 곡류도 판매만이 위주가 아니고 가축사료로서 이용되는 농업을 혼동농업이라 한다.

3) 유축농업(有畜農業)

유축농업은 주곡농업(主穀農業)에 가축을 도입하여 축산에 의한 직접적인 수입을 올리는 목적 외에 가축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가지 기능 즉 비료생산, 출력의 이용, 가족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농업의 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유축농업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으며 지금도 이러한 형태의 농업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츰 전업축산으로 발전하여감에 따라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다. 종축공급경영(種畜供給經營)

종축공급경영은 양계분야에서 가장 활발하며 양돈도 근래에 크게 발전하고 있다. 종축공급경영은 기초축(基礎畜)의 도입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혈통 능력, 번식, 체형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종축공급경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종축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가의 기초

축과 시설이 필요하며 종축생산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둘째, 종축을 생산하기 위한 사료, 환경토질이 잘 구비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일반적인 축산경영보다 위험부담률이 높다.

라. 도시근교적 축산경영과 원교적 축산경영

축산물의 생산은 소비자와의 거리 즉 도시와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축산경영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 이를테면 도시와 가까운 사육농가는 멀리 떨어진 사육농가에 비하여 생산물의 문전가격(門前價格)이 높고 생산자재의 구입이 유리하므로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이들은 많은 자본을 투입시켜 다량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집약적 생산방납을 채택하게 되며 도시원교지(都市遠郊地)에서는 조방적(粗放的) 생산방납을 채택하게 된다.

중량, 용적이 커서 수송비가 많이 드는 것, 신선(新鮮)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즉 야채, 생유(生乳) 등과 같은 것은 근교농업 또는 근교축산이 유리하다.

이와 반대로 원교농업(遠郊農業)은 보존이 용이하고 수송비가 저렴한 부문을 선택하여 조방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유리하다.*